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소개

김석봉 간사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이하 대경지협, 또는 본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제휴 하에 도서관의 발전과 문화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62년 8월 대구시도서관협회(가칭) 조직을 발기하여, 그 해 12월 10일 창립총회에서 「경상북도도서관협회」로 시작했다. 그 후 1982년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로 개칭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자료의 편간(編刊),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지위향상, 도서관 설립 권장 및 운영에 관한 조언, 양서의 선정 보급, 독서운동의 추진 및 조언, 각계의 도서관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 제휴, 기타 대경지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수행 등이 있다.

올해 창립 4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경지협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은 1963년 제2회, 제3회 도서관실무강습(각각 72시간), 1964년 사서실무강습(48시간), 1968년, 1970년 사서교사 세미나 개최, 1970년 도서관 조무원 강습회 개최, 1973년 도서관 담당(시, 군 교육청) 장학사 연수회, 도서관원의 밤, 초, 중 교장, 교감 도서관세미나 개최, 도서관상 제정 시상, 1984년 대구·경북 도협지 발간(제10집), 1991년~2003년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세미나 개최, 2003년 대구·경북도협지 발간(제19집), 그 외 본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공로패전달, 학교도서관 도서부장표창 등이 있다.

대경지협은 매년 4월에 정기총회, 11월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독서운동의 지속적인 확산, 소속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본회의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전무이사 1명, 감사 2명, 간사 1명을 두고 있다. ㉞

2004년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임원 명단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회 장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관장	남 정 섭	
부 회 장	대구대학교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경 호	
"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관장	전 하 명	
"	대구는공중학교 교장	강 여 금	
전무이사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문헌정보과장	김 동 락	
감 사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팀장	김 석 만	
"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풍산분관장	김 필 진	
간 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김 석 봉	

[문의: 간사 김석봉, 전화: 053-420-2728, 전송: 053-420-2750, e-mail: sspp505@hanmir.com, 주소: (700-422)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길 28(동인동 2가 42번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가꾸기

손 옥 경_ 아름다운재단 간사

아름다운재단은 누구나 즐겁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나눔 및 기부문화확산을 확산하고자 2000년 창립한 공익재단이다.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월급의 1%, 용돈의 1%와 같은 작은 나눔으로 모인 기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사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과 단체를 지원한다.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가꾸기’ 지원사업은 지난 2002년도 겨울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판매수익금 기부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듬해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를 출판한 현암사에서 추가 기금을 기부하면서 아름다운재단에는 소외지역의 도서지역 및 도서관 지원 영역으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기금’이 만들어졌다. 이후 본 사업에 마음을 같이하는 1% 나눔회원들의 매달 나눔이 보태어져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다.

서점에 가려면 먼 길을 나서야 하는 산간, 벽지의 주민들과 그 아이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한 권의 책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가꾸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의 이웃들에게 좋은 책을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년에 두 번씩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매월 1단체(연12개단체)에 300만원 규모의 도서와 정기간행물, 50만원 규모의 도서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정말 좋은 책이 갈 수 있도록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 그 도서관에 맞는 책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있다. 도서선정 위원회란, 아동도서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책 관련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분들로 이루어진 자원모임으로 아동, 청소년, 일반도서 중심으로 좋은 도서를 선별,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총 7개 단체를 매월 지원했다.

다녀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서관이 부족한 지 절감할 수 있다. 경북 봉화 산골마을에 있는 분천분교 아이들은 1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도서관에 갈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동도서관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책을 모아 학교 사택에 도서관을 꾸몄다. 인천의 짙똥이어린이작은도서관 선생님은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걸어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용문동어린이도서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물 먹으러 들어오고, 책읽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모두들 작은 도서관이다. 자신의 공간을 조금 내어 아이들에게 책나눔을 하는 작은 도서관들, 지역 주민들이 각자 집에 있는 책들을 조금씩 보태어 나누어 보는 동네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지역에선 너무나 큰 의미의 도서관들이다. 때론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때론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말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이런 책나눔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마을 곳곳 작지만 나눔이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아름다운재단의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소외 지역을 지원한다는 의미와 이런 의미있는 활동을 실천하는 풀뿌리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http://www.beautifulfund.org>

도서관분야 NGO를 찾아서

[문의 : 간사 손옥경, 전화 : 02-766-1004, 전송 : 02-730-1235, e-mail : powerego@beautifulfund.co.kr, 주소 : (110-260) 서울시 중로구 가회동 16-14번지 아름다운재단]